

PL오계

■ 글·조형래 전무 질레트코리아(주)

신교의 직업윤리를 규정짓기 위해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 : 1864~1920)가 사용한 말이 이른바 세속내 금욕(世俗內禁慾)이다. 종교적 금욕은 단지 세속을 떠나는 것만을 뜻한다. 그렇지만 직업윤리의 경우에는 직업을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모든 욕망을 끊고 오직 그 자기의 직업에 정려(精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된 모든 이득은 그것을 욕망의 충족에 쓰지 않고, 일종의 자본으로서 직업활동에 몽땅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풍속인데, 천주교에서는 삼구(三仇)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구(three enemies)란 착한 일을 못하게 막는 육신(肉身 : flesh), 세속(世俗 : world)과 마귀(魔鬼 : Satan)의 세가지 원수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세속적(世俗的)이라고 하면, 세속스러운 것, 세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형편을 말한다.

그래서 속리(俗離)라고 하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떠난 것을 말한다. 영국의 시인 그레이(Thomas Gray : 1716~1771)가 쓴 시의 한 구절인 <속세를 멀리 떠나서(far from the madding crowd)>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광란의 무리를 떠나서 초야에 묻혀 산다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광기가 있어 마치 발광한 무리들로 보이는 것이다.

가치관이나 문화와 습속 그리고 사회제도의 각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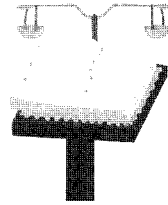
야에서, 종교적 사고(思考)와 종교 교단(教團)의 영향력과 특권이 서서히 상실되어 가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세속화(世俗化)의 현상은 30년 전쟁후, 웨스트팔리아의 국제회의(1648)에서 교회가 관리하는 토지와 재산을 세속적 기관에 이관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처음이다.

정치 및 교육과 종교의 분리, 사상·도덕·예술의 종교로부터의 해방, 과학적 사고는 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동시에 근대화의 한 지표로 보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다른 문화와 제도로부터의 분화(分化)이며 종교의 독자적인 기능이 더욱 더 분명해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도 근본적인 위기로 보는 입장과, 무종교나 반종교의 적극적 주장인 세속주의와는 구별해서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즉 전통적 종교의 입장에서는 위기이지만, 신으로부터 이 세상을 위임받아 인간이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적극적 기회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야기를 잠깐 바꾸어, 충북 보은군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 의연히 서 있는 노거수(老巨樹), 유명한 속리산(俗籬山)의 정이품송(正二品松)이다.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높이 15m, 둘레 4.5m, 가지길이는 동쪽 10.3m, 서쪽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수령은 대개 600년 가까이로 추정된다.

1464년 세조(世祖)가 범주사로 들어갈 때, 이 소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연(輦)을 걸린다>라고 말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들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통
과시켰다고 전해 내려온다. 이런 연유로 해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지금의 장관급인 정2품의 벼슬을 내렸
다고 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속오계(世俗五戒)란 신라
진평왕때 원광(圓光)이 세속적인 유가덕목(儒家德
目)에 따라 지은 화랑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계율
을 말한다.

1. 사군이충(事君以忠)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
Serving the king with loyalty.
2. 사친이효(事親以孝)
아버이 섬기기를 효도로써 한다.
Serving parents with piety.
3. 교우이신(交友以信)
벗을 사귄데 믿음으로써 한다.
Making friends with belief.
4. 임전무퇴(臨戰無退)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
Knowing no retreat at a battle.
5. 살생유택(殺生有擇)
살생을 하는 데에 가림이 있다는 뜻으로 함부
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
Prohibiting killing animals.

이상의 다섯가지 계율로, 그 후 화랑도는 이를
신조로 하여 크게 발전하여 삼국통일의 기초를 이룩
하게 되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L시대에 접어들었
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언제든 엄
청난 파장을 몰고 올 PL에 대비해서 5가지의 필히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여기에 적어 본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기타 판매 또는 유통업체는

꼭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야 한다.

첫째 마인드(mind)를 확고히 정해야 한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아래 전사원이 똘똘 뭉
쳐서 임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에서부터 말단사원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제품안전(PS)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감없이 안전성과 내구성이 있는 결함없는 양질의
제품이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소비자를
가능한 한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품질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의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를 문서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
돈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설명서와 경고문건을 소비자
들이 용이하게 해독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하며, 제품
의 출고시점이 후에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제품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으로 후일 공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료제출에 주요한 단서가 된다.

**넷째 사전에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든다.**

피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적당한 PL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생
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손해배상을 최소
화하고 가능한한 위험을 분산시켜 기업이 입을 손상
(damage)을 경감시켜야 한다.

**다섯째 항상 고객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성실한 기업
풍토를 만들고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기업이미지를 정립시
켜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독단으로 해결하
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
흥원의 ADR(법원의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하여 지원
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